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4일 (음력 12월 9일) 월요일

‘낙후 섬’ 개발법 개정 재시동...전남 25곳 해당

“개발대상 제외 기준 연륙 ‘10년’→ ‘20년’ 으로 연장”

작년 내용 변경 ‘도서개발 촉진법’ 황주홍 의원 발의

낙후된 섬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입법이 올해 다시 추진된다.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연륙 10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개발대상 도서제의 기준을 연륙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여수(삼산도·백야도·장도), 고흥(지족도·점도), 진도(월도·각홀도), 신안(문병도·장제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육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2018~2027년)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돼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전남 25곳 등 전국적으로 45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다 해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시스



인지상정

진도 팽목항의 4·16현장이 흔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팽목항은 수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미수습자를 기다린 기억의 공간이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대책위는 ‘세월호참사 이후 중단된 전남 진도항(팽목항) 개발사업이 재개되면서 4·16현장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세월호를 인양해 목표항으로 이송한 2017년 3월31일까지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가다듬을 투명한 공간이었다. 대책위는 “이 항구에서 1000억 넘게 팔려갔던 수색작업, 수습활동, 자원봉사, 추모행사 등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공간을 소규모로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이통진 진도군수 등 관련 인사들의 취해를 상향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팽목항을 기억의 공간으로... 시민들



팽목항 개발 사업 때문에... 이동진



양해를 구해야 하는 데... 김영록

김정환 기자

전남도,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국가 기념행사 유치

정부예산안 7억원 증액...행사 개최 장소 조속 확정 예정

전남도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8월 8일 첫 기념행사인 2019년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섬의 날’은 전남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에 있는 도서문화연구원, 섬 연구소 등 섬 관련 기관 단체, 지역 언론 등과 함께 미래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

께 공유하기 위해 ‘섬의 날’ 제정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다.

8월 8일로 정한 것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8월이 섬지역 먹거리 및 볼거리가 가장 풍성하며 여름 휴가철과 함께 섬 방문객

이 가장 많다는 점, 8이라는 숫자가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 때문이다.

전남도는 제1회 섬의 날 유치를 위해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섬의 날 행사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당초 3억 원이었던 정부예산안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방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섬의 날 전남 유치 확정은 그동안 전남도에서 추진해온 섬의 날 제정 기여도, 지역적 상징성, 국제 녹색 섬 포럼 등 관련

행사 개최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섬의 날’ 행사 개최 구체적 장소를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시군, 전문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해 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의 날은 전국 섬이 하나가 돼 섬이 가진 독특한 생태 문화자원을 알리고 섬과의 교류인구를 확대해 섬과 도시민의 교류 장이 될 것”이라며 “알차고 의미있는 콘텐츠 준비로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남이 명실상부한 섬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